

# SONY의 변신은 무죄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SONY는 많은 사람에게 왠지 낯설지가 않은 이름이다. SONY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6년 동경의 한 백화점 건물 안 전자제품 상점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일본 재벌이 아닌 신생 기업으로 일본 최초의 테이프 레코더를 생산하였고, 1955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생산해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후 미국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SONY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일본의 전기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활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일본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라 일본에서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SONY의 이미지가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SONY가 유명해진 것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덕분인데, 그보다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69년 등장한 ‘Walkman’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개인 오디오 시장에 혁신을 가져왔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SONY의 전자제품은 혁신의 상징이었고 1980년대 CD 플레이어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등 음향과 영상 등 미디어 부문에 있어서 세계 모든 기업이 SONY를 모방할 정도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에게 SONY는 전자제품 특히, 오디오 기기를 잘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는 게임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닌텐도의 패미컴이 가정용 게임기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음향과 영상 부문에서 기술력을 축적한 SONY는 게임기 시장에서 혁신의 바람을 몰고 왔다. 뛰어난 그래픽과 우수한 음향효과는 게임 마니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고 SONY 그룹의 핵심 축으로 게임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 1994년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게임 콘솔인 PlayStation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시리즈로 판매되었고 지금은 PlayStation5가 주력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게임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세대에게 SONY는 게임 콘솔과 우수한 그래픽의 게임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SONY는 음향과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면서 직접 미국의 음반사인 CBS Records(1988)와 영화사인 Columbia Pictures Entertainment (1989)를 인수했다. 음향기기 제조뿐만 아니라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자기기 등 하드웨어를 생산하던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최근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사가 SONY다. 일명 케데몬은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전의 SONY를 모르기에 SONY를 영화 제작사 혹은 배급사로 알고 있다.

더욱 놀라운 SONY의 변신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니의 이미지센터는 디지털 카메라 제조 시설에 축적되어 현재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Honda와 공동으로 전기차 생산 기업인 Sony Honda Mobility Inc.를 설립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SONY는 전기자동차 회사로 알려질지도 모르겠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종이빨대, 소비자는 불편·기업은 파산



김 지 수 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솔직히 말해서 기자인 나도 종이빨대가 싫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눅눅하게 흐물거리고, 몇 번 빨다 보면 빨대가 찢어진다. 음료는 한참 남았는데, 빨대는 이미 수명을 다 한듯 종이 낱새와 뒤섞인 음료를 마시는 것 같아 불편하다. 많은 소비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종이빨대 업계 사람들의 표정은 불편함보다 절박함에 가까웠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이라 불렸다. 종이빨대 업체들은 그 길을 밟고 따라나섰지만 도착한 곳은 ‘파산 위기’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이빨대 제조업체 리앤비의 최광현 대표는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모든 게 부채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정부가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탈플라스틱 정책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축소·폐지됐다. 정책을 믿고 투자한 업체들만 남았다. 최 대표는 “정부 정책 철회로 직원이 40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었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정부를 믿은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현재 17곳이 었지만, 지금은 6곳만 남았다. 나머지는 폐업하거나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다.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이미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한때 ‘탈플라스틱’을 외치며 기업들에게 친환경 전환을 독려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종이빨대 정책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하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소비자 불만을 의식한 결과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종이빨대의 불편함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 제품 완성도는 아직 낮고, 가격은 비싸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개발은 시장이 지속 가능해야 가능하다. 정책이 바뀌고 수요가 끊기면, 누가 돈과 시간을 들여 개선하겠는가.

지금의 종이빨대는 불편하고 미완성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미완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9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늘 전화위복이 있는 것도 인생. 48년생 상대방의 나쁜 계락을 미리 알고 대처. 60년생 하상을 통해서라도 이성에게 과시하고 싶다. 72년생 마음이 한결같으면 어떤 일도 해낸다. 84년생 내 처지가 초라해도 한탄하지 말자.



37년생 마음에 불만이 있다고 마구 행동하면 본인 발등만. 49년생 처음부터 가질 게 없고 기대할 게 없다. 61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73년생 언제나 일인당백(一人當百)을 한다. 85년생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는 부모님 지혜.



38년생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50년생 돈 문제로 이혼 위기. 62년생 결심이 사할 못 같다. 74년생 봄날 달밤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네. 86년생 고학력임에도 생활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불성실의 결과일 것.



39년생 입과 입속을 청결하면 해도 좋은 기를 받는다. 51년생 아간 음주는 종일 하루를 힘들게 한다. 63년생 낮에는 일하고 밤사이엔 공부한다. 75년생 뛰어난 작품이 드디어 태어난다. 87년생 행운은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데.



40년생 자두연기(煮豆燃箕)라 서글프다. 52년생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운기를 좋게 만들어보라. 64년생 연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76년생 은역을 입으면 보답을 해야 내 도리. 88년생 義의 기운이니 멀리 있는 길에서 운전조심.



41년생 내가 한 일은 내가 받는다. 53년생 나쁜 기운이 있을 때는 외출은 삼가. 65년생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으나 손재로 이어질 수 있다. 77년생 꽃에는 향기가 있고 달빛은 아름답게 비추네. 89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절박하다.



42년생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니 말조심. 54년생 얼굴빛이 어두우니 음식도 조심해서 먹도록. 66년생 개미구멍이 점점 커져 마침내 큰 독이 무너진다. 78년생 웃는 것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네. 90년생 현재 상황에 따라 움직이도록.



43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을 먼저 사도록. 55년생 정신을 한곳에 모아보라. 67년생 직원 중에 도둑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흘러들 한다. 79년생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듯 답답하지만 헤쳐나간다. 91년생 초저녁 음주는 조심.



44년생 얹디얹은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전전긍긍. 56년생 수성(水性)이라 예능적 기운이 탁월. 68년생 화장이 짙어지는 일진. 80년생 한 가지 일을 보고 내일 할 일이 짐작이 간다. 92년생 순간의 감정과 기분으로 약속하지 말자.



45년생 집안 문제는 오전에 슬프고 이른 오후에 기쁨이 있다. 57년생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 69년생 내 능력은 새 발의 피로 적지만 발전적. 81년생 3가지 소식을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 93년생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유지.



46년생 앞의 실수를 슬퍼하지 말고 재조명하는 거울로 삼라. 58년생 스승은 인품이 나 글이 아름다우니 존경. 70년생 정서 교육도 중요시. 82년생 한바탕의 꿈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니 공부하자. 94년생 오늘 귀인은 전생에 이미 맺은 인연.



47년생 사업의 장구한 이익을 위해 신용을. 59년생 남의 단점을 바라보듯이 나의 단점도 찾아. 71년생 이사는 다음 날로 결정해야. 83년생 귀인을 만나고 보니 옛날 지인. 95년생 예수님은 오손이 한 일을 원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 김상회의四季

### 부처추신

부처추신釜底抽薪은 가마솥 밑의 장작을 뽑아내는 계책이다. 아궁이에 불길이 사라지면 솥에 담긴 내용물은 더는 요동치지 않는다. 이는 근본을 차단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원인을 제거해서 국면을 바꾸는 방법이다. 중국 병법 36계의 열아홉 번째 계책인 부처추신은 인간의 인생과 운명의 이해, 그리고 병리학의 사유에도 중요한 의미를 전해준다. 사주의 오행은 상생과 상극의 법칙으로 얽혀 있으며, 그 조화가 깨질 때 불균형과 갈등이 생기는데 이 불균형을 다루는 방식과 비슷하다. 겉으로 드러난 불운을 탓하기보다, 근본을 파악하고 만약 빈번하게 재물의 손실이 생긴다면 단순히 재물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주에서 재성을 갇아먹는 인성이나 관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아닌지, 오행의 흐름에서 무엇이 불균형을 일으키는지 살펴서 원인을 알아야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 성격을 탓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단순히 돈을 더 벌 방법만 찾는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지를 보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오행과 심성의 조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돈이 모이지 않으면 허세 부리는 습관이나 재성이 지나쳐 탐욕에 휘말린 사주는 재물을 줄이고 印星을 기르면 안정이 찾아온다. 관성이 지나쳐 압박이 심한 사주는 관의 기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꾸면 삶이 가벼워진다. 운명 속의 불균형을 찾아 조율하는 부처추신 계책은 이 지혜와 맞닿아 있다. 불운이 닥쳐도 원인을 파악하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 막만 찾는다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니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785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889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   |   |   |   |   |   |   |   |   |
|---|---|---|---|---|---|---|---|---|
| 1 |   |   |   |   | 9 |   | 6 | 3 |
| 5 |   | 7 | 6 |   |   | 2 |   |   |
|   | 8 |   | 2 | 4 |   |   | 3 |   |
| 2 |   |   |   |   |   | 4 | 1 |   |
|   |   | 1 |   |   |   | 9 |   |   |
|   | 9 | 3 |   |   |   |   |   | 2 |
|   | 7 |   |   | 3 | 1 |   | 2 |   |
|   |   | 2 |   |   | 6 | 3 |   | 5 |
| 3 | 6 |   | 4 |   |   |   |   | 9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인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6 | 2 | 1 | 2 | 8 | 7 | 9 | 9 | 8 |
| 9 | 7 | 8 | 9 | 2 | 6 | 2 | 1 | 8 |
| 9 | 2 | 8 | 1 | 8 | 9 | 7 | 2 | 6 |
| 2 | 8 | 9 | 2 | 9 | 1 | 8 | 6 | 7 |
| 8 | 9 | 6 | 7 | 9 | 8 | 1 | 2 | 2 |
| 2 | 1 | 7 | 6 | 8 | 9 | 9 | 2 |   |
| 1 | 8 | 2 | 9 | 7 | 2 | 6 | 8 | 9 |
| 7 | 6 | 2 | 8 | 1 | 9 | 2 | 8 | 9 |
| 8 | 9 | 9 | 6 | 2 | 2 | 2 | 7 | 1 |

|   |   |   |   |   |   |   |   |   |
|---|---|---|---|---|---|---|---|---|
| 8 | 7 | 1 | 9 | 2 | 9 | 6 | 8 | 2 |
| 8 | 2 | 9 | 8 | 1 | 6 | 2 | 7 | 9 |
| 9 | 6 | 2 | 2 | 8 | 7 | 1 | 8 | 9 |
| 2 | 8 | 6 | 9 | 2 | 1 | 7 | 9 | 8 |
| 9 | 9 | 2 | 7 | 8 | 2 | 8 | 1 | 6 |
| 1 | 8 | 7 | 6 | 9 | 9 | 2 | 2 | 8 |
| 7 | 1 | 8 | 2 | 9 | 8 | 9 | 6 | 2 |
| 6 | 9 | 9 | 8 | 7 | 2 | 8 | 2 | 1 |
| 2 | 2 | 8 | 1 | 6 | 8 | 9 | 7 | 7 |